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총선 앞 전국 이슈 되나

도민 500여명 국회서 결의대회
전공의협 '의대 증원 팬 집단행동'
전남도, 의대 캠퍼스
목포대·순천대 공동 운영 검토



눈덮인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최대 26cm에 달하는 눈이 내린 24일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콰이어길 산책로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25일 이후 눈은 그치지 않으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에 국립 의대를 설립하는 계획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남 지역민들은 총선 대표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내걸고, '국립의대 설립 결의대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지역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2월 9~12일)를 전후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수요에도, 상급 병원이 없어 '응급실 뱅뱅이', '원정 수술길'에 올라야 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국립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를 위해 2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립의대 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재철(민주·보성1) 도의원 대표발의로 통과한 조례안은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가 국립 의대 유치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민간 차원의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도의 의대 유치 사업 추진은 물론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을 앞두고 지역민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립 의대 유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남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도 자체 구성하고 의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도 같은 날 도청 서재발실에서 열린 정부 주최 '지역민 필수의료 혁신 간담회'에서 열악한 의료 현실을 소개하며 국립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날 구체적으로 노인 인구비율 전국 1위(25.6%), 장애인 인구비율 전국 1위(7.6%), 전남 27개 유인도 중 의사가 없는 섬이 164개에 이르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 취약지역인 데도,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국립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오남호 영암 한국병원 원장은 "높은 보상에

전문의료인력 구인난은 지속되고 채용을 하더라도 축소 및 출퇴근 제공 등 추가비용이 드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의료 현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고광일 목포 한국병원 원장도 "지역 필수의료인력의 수도권 등 상급병원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상급병원의 수도권 집중 제한 등 균형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료정책실장은 이같은 실태를 보고받은 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필수조건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기로 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구체적 증원 규모를 논의중인 만큼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치가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시 '2026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전남도 계획이다.

도는 이미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한 의대유치추진단을 설치했고, 전문가·경제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300여명 규모의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출범시키며 국립 의대 유치를 힘쓰고 있다.

도는 또 결의대회에서도 정치인들의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악한 지역 보건 의료 현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정치적 이슈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앞서, 전남도는 캐나다를 방문해 약 1000km 떨어져 있는 레이크헤드 대학(서부 캠퍼스)과 로렌시안 대학(동부 캠퍼스)이 함께 의대 캠퍼스를 운영하는 노던 온타리오대 사례를 벤치마킹, 의대 캠퍼스를 목포대와 순천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서는 양적인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증원 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전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직된 의협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 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종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고 반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총선을 앞둔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합참 "북한, 서해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전술핵 공격 능력 과시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참모본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작년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신행 중거리 탄도미사일(북한 주장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열을 만난다.

북한군이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평양 서쪽 해상에서 원형 궤도로 도는 모습이 우리 군의 감시 자산에 의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원형 혹은 8자형 궤도로 시험발사를 한다. 저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및 낙하지 점을 포착하기 어렵다. 북한군이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산-1·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출생아 8개월째 1만명대... 지난해 1~11월 21만3천명 역대 최소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 1만7000명대까지 줄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감소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시도별로 충북·충남·전남 3곳에서는 증가했다. 나머지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렀다.

이에 작년 1~11월 태어난 아기는 누적으로 21만3572명에 그쳐 마찬가지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든 수준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전통시장도 화재 안전지대 아니다	▶6면
아시아컵 오늘 말레이전...조 1위냐 2위냐	▶19면
팔도 핫플레이스 - 대전 성심당	▶22면

Mercedes-Benz Certified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150000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에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2000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QR Cod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